

아부자르의 꿈

아크타르의 수척한 얼굴은 고뇌와 절망을 감추지 못 하였습니다. 동부 파키스탄 구지라트의 쓰러져가는 단칸방 집에서 아크타르는 아들 아부자르의 사진을 들여다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아들 아부자르는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도 사드리고 또 배불리 잡수실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부자르는 지난달 지중해에서 침몰한 저인망 어선 아리아나에 승선했던,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유럽으로 밀항하던 750 명의 피난/이민 희망자중의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아크타르는 스쿨버스 운전사며 한달 월급은 90 불입니다. 그 돈으로는 아이들에게 마른 빵을 주는게 전부였습니다. 한달에 18 불 하는 전기료금 내기도 뻣뻣했습니다. 거기다 파키스탄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2억 2천만의 국민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으며 식량, 연료, 생필품은 자고 나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친척이나 아들이 유럽에 살고 있다면 그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 14살의 영리하고 쾌활한 소년은 집안의 고통을 자기 어깨에 짊어 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월말에 그는 부모와 동생들의 굶주림을 지켜 봐야 했습니다.

이대로가면 우리는 모두 여기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나는 떠날 것이고 가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방도 한칸 늘리고, 동생도 치료해 줄 것입니다. 제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간청 했습니다.



A photo provided by the Hellenic Coast Guard shows migrants onboard the boat, before it capsized in the early hours of June 14.

이웃마을의 밀항조직과 연결된 사람에게 알아보니 아부자르가 이태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60만 루피(\$9,600)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시에 우리는 그만큼 돈이 없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책은 능숙하게, 집을 팔아야 이태리에 가면 일년에 그런집 열채는 살수있을 만큼 돈을 벌어요.” 하면서 이 부자를 믿게 설득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5월초, 아브자르와 그의 삼촌 그리고 다른 몇명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카라치에서 두바이로 그리고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로 향했습니다. 리비아의 항구도시인 토부룩은 유럽으로 가려는 세계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는 도시입니다. 그들이 배를 타기 전부터 각종 위협에, 인신매매, 구금, 납치, 폭행 강간 등, 에 처하게 됩니다. 밀입국 조직은 국제적인 규모로 대개 그 뒤에는 조직적인 마약이나 폭력조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리로 떠나기 전날밤 아브자르는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을 웃기려고 혀를 내밀고 웃기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비데오를 찍어 보냈습니다. 아브자르는 이 보트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가족에게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6월 9일, 아부자르는 아리아나라는 어선에 승선했습니다. 100 명이 태울수 있는 이 배에 750 명이 승선했으며 그 절반이 파키스탄인였습니다. 나머지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아프리카 각국에서 모인 피난민, 이민희망자들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인들은 맨 아래 갑판에 자리 잡았는데 비좁아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두번째 갑판엔 시리아 팔레스타인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출항한지 4일이 지나자 음식과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가지고 피가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스 해양경찰대는 이미 아리아나 밀입국선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우리는 이태로가는중, 도움은 필요없다 다만, 물과 음식을 요구 했다고 전했습니다. 뒤에 그리스 정부는 빨리 구조활동을 벌리지 않았다는 비난에 이렇게 설명 했습니다.

그리스 육지에서 47 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아리아나호는 엔진이 멈추었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바람에 배가 기울며 물속으로 가라 앉았습니다.

그리스 해양경찰대는 구조 활동을 벌려 104명을 구조 하고 시체 78구를 건졌습니다. 나머지 600 여명은 배와 함께 지중해에서 가장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 앉았습니다. 생존자 중 12 명이 파카스탄인었는데 그중에 아부자르는 없었습니다.

피난민과 밀입국민자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밀입국조직들의 눈에 발린 고독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택한 이 위험한 경로는 고향에 있는 가족이 처한 극한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하고 일할수 있는 법적수단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위험한 밀입국경로가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밀입국선을 대하는 유럽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민을 수용할 의사도 여력도 없다보니 전략적으로 구조를 지연시키며 배가 자국영해 밖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밀내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안전한 곳에서 살 권리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지만 밀입국자들의 난민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3세계의 경제는 점점더 수렁으로 빠지고 겹쳐서 지구의 온난화로 가뭄과 홍수가 휘몰아쳐 사람이 더 이상 살수없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참상에도 불구하고 지중해를 건너는 밀항선을 탈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이 지중해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글 - 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2023년
08월 0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주님의 거룩한 변모〉 라파엘로, 1518-20, 바티칸 피나코테카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다니엘 예언서7,9-10.13-14
- # 화답송 시편 97(96),1-2,5-6,9(◎ 1과 9)
- ◎ 주님은 임금입니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 # 제 2독서 베드로 2서1,16-19
- # 복음 환호송 마태 17,5 참조



후렴. 주님은 임금입니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 # 복음 마태오17,1-9
- # 성가번호 입당 72 봉헌 219, 211 성체 162, 169 파견 78

